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탄과의 인터뷰**

기자: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기자:우선 2002년도 사업계획은 어떨죠?
 사탄:예, 우선 사람들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였는데 앞으로는 좀더 밝고 귀여운 이미지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좀더 밝고 귀엽고 색시한 이미지의 사탄 캐릭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기자:친숙한 이미지로 다가 가는게 가능할 까요?
 사탄:네, 이미 저는 일상에서 친숙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유행하고 있는 "엽기"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 단어는 제가 만든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기자:올해사업계획의 주요 컨셉(concept)은 뭐죠?
 사탄:그것은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선악의 개념을 둔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의 개념이 뒤바뀌는 그 날이 옵니다.

기자:아주 결의가 대단하군요. 근데 그 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사탄: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교만을 심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기자: 예...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군요. 믿는 자 중에서 현혹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탄: 당연히 오래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작은 교만을 품어줘도 자신을 높이거나 특이한 경우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를 향해 드리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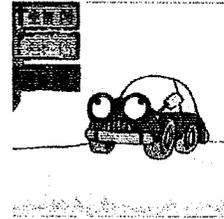
기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사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오직 그 길만을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에게 오라는 얘기 안할테니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한번뿐인 인생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2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7월 7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사랑은.....(월남전과 사랑)

단골 주유소는? 1)主有所 2)注油所 3)酒有所



사랑하던 두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가 군대에 가게되었고.. 급기야, 월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험한 월남전에 보내놓고 무사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고국에 돌아가리라는 일념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넘기던중.. 남자는 부상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폭탄의 파편을 맞아,

양팔을 절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녀를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이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자'라고 남자는 마음을 먹고 고국에 있는 여자에게 전사했다는 편지를 친구를 통해 보내게 했습니다.

양팔을 절단한 모습으로 남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에 돌아왔고 행어나 여자의 눈에 떨까,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후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녀가 행복해진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몇년이 흐른뒤, 남자는 사랑하는 그녀를 그리워하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보고싶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 담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니... 그녀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녀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채 살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전사한 사랑하던 남자를 생각하여.. 월남전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잃은 남자를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5,7)"

엄마가 딸에게
 여자의 변신은 무죄란다
 고상한 아름다움으로 꾸미거라
 무엇보다 여자의 희심은
 영광이요 축복임을 잊지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히딩크는
 축구를 즐기도록 가르쳤다
 노예만이 자기 일을
 즐기지 않음을 기억하거라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운 것은 사람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타이야표 「검정고무신」, 「ABC포마드」, 「동동구리무」, 「향로표 통성냥」, 「팔각유엔성냥」, 가루치약 「치분」, 물래보던 잡지 「아리랑」, 설탕 대신 먹던 「당원」과 「오뚜기표 뉴슈가」, 복사기 「왕관표 출판」('가리방'이라 불렀음), 토요일 밤 「명화극장」 예고하던 정영일 씨, 배우 신성일 전담 성우 목소리...
 부모들이 삼은 계란을 먹을 때 그것은 계란이 아니라 추억을 먹고 있음을 자녀들은 모를 겁니다.

주 일 에 배

(* 표는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다 같 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 도 자
Proclaim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 송 44장 다 같 이
Hymn

*성 시 교 독 18(시 67)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327 장 다 같 이
Hymn

기 도
Prayer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0:17-20(신 110)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성 가 대 찬 양 나 무 십 자 가 성 가 대
Choir

설 교 '중심 계명' 김 성 국 목 사
Sermon

찬 송 410장 다 같 이
Hymn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헌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응 답 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Response Song (1절:김교섭 장로 가족, 2절:다같이)

위 탁 의 말 씀 인 도 자
Encouragement

축 도 김 성 국 목 사
Benediction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7	박상옥	이광희	사카시다.최기향	김교섭	권용일.김경구
14	김교섭	이금선	양경배.김동숙	김경구	김반석.김성국
21	박일영	이기중	윤형권.신영화	김반석	김영길.김종건
28	사카시다	이재영	김교섭.정희자	김성국	김종우.김종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6시

◀교 회 소 식▶

1.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최현철 성도.한상순 집사. 은수(2남여선교회.1구역)
☎626-7245 ☐ 13B Kimber Hall Ave. Mt. Roskill
2. 구역예배주간: 이번주는 구역예배(한달에 한번)주간입니다.
3. 다음주일(예고): 교회창립 3주년 주일입니다.
4. 피택 향촌직 임직식(예고):다음주일 예배시간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장로:김종건.정덕수.이광희.*안수집사:김영길.박일영.이재영.최재학
*권사:김순자.노은숙.이규임.정희자.지찬영
5. 다음주일은 "성문밖 주일" 로 지킵니다
*다음주일은 헌금을 우리교회로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은 평소 마음에 두던 개척교회,한국의 고향교회등에 보내시기 바랍니다(가까운 성도,구역식구들과 모아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교회가 개척할 때 어려움을 겪어 보아 알기에 이웃교회와 한몸됨을 나누려 하는 목적입니다.
*혹시 보낼 곳이 없으시면 "해외선교(민지영 선교사)" "개척교회"등 명목을 적어 주시면 재정부에서 주소를 적어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6. 수련회: <학생부>: 7월 8일(월)-9일(화). <청년부>: 7월 11일(목)-13일(토)
*학생부: 397 Henderson Valley Rd.Henderson."Carey Park Christian Camp"
*오전 9시까지 Camp장으로 모입니다(시간되시는 성도들의 차량지원 부탁)
7. 임직자 기도와 결단 모임(부부동반)
*일시: 금요일(12일) 저녁 6:30분 *장소:이광희 집사 자택
8. 양경배 집사: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축하"
*성공적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위해 뉴질랜드 후원회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9. 자원봉사를 바랍니다(문의: 봉사부장 양경배 집사)
1)주방 Coffee 봉사:<대상> 남성:대형 주전자이기에 연약한 여성에게 무리
*단점:연중 Tea Time 없는 주일이 없어 휴가 거의 불가능
*장점:Gentle Man이라고 주방 봉사자들의 인구에 회자됨
대량 커피 티는 법 배워 가정에서 실습함으로 다정한 남편,아버지로 기억됨
- 2)교회당 Gas heater 개스통(Gas Bottle)담당
*대상:남성 *이유:매주 LPG Gas를 채워야 주일,수요일예배시 사용
*단점:매주 토요일 시간내야 하는 번거로움.
*장점:겨울 지나면 긴 휴가. 따뜻한 예배분위기 보며 기쁨.
- 3)결석자 주보발송:<대상>: 여성 <방법>:구역장으로부터 결석자 명단 받아 주보발송
*단점:출석을 100% 교우와 알고 지내기 어려움.
*장점:주보받고 기뻐하는 성도로부터 무언의 감사의 마음 받음

10.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보와 각 부서별 게시판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my.dreamwiz.com/nzcalvary

◀남몰래는 밤엔 우며의 첫별▶ *컨닝의 끝*
어느 중학교 음악 시험시간. 선생님께서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를 들려준 후 작곡자와 곡명을 쓰게 하였다. 열기적인 답안지.....
학생 A: "G선상의 아리아"
학생 B(A 답안지 컨닝을 완벽하게 소화 못함):"G 선상의 아리랑"
학생 C(역시 완벽하지 못한 컨닝):"G 선생의 아리아"